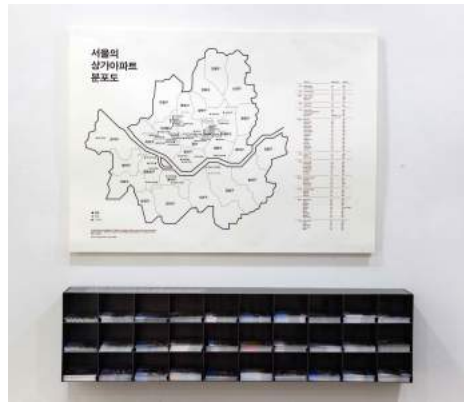


■ 전시장 설치 이미지



전시장 외부 간판 작업



1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1



1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2



1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3



2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1



2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2



2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3



2층 전시장 설치 이미지 4

참고 자료) 작가 및 주요 작품 소개

참여작가	프로젝트 소개
<p>김재경 건축사진가 김재경은 지난 30여 년 간 인문학적 감각과 절제된 심미성을 바탕으로 공간과 건축, 인간의 풍경을 렌즈에 담아왔다. 1994년 개인전 <건축사진>을 시작으로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1998년 월간 <POAR>가 뽑은 '11인의 주목받은 건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집 『자연과 건축』, 『mute』, 『mute2: 봉인된 시간』, 『화성』 외 사진책 『첫 클락 건축을 품다』, 『건축도시기행』(공저) 등이 있다. 2003년 한미문화예술재단에서 주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p>	<p>새석관시장 사진기록 삶의 어찌지 못함이 시간 앞에서라면 모든 새것 또한 그렇다. 도시가 커지며 나타난 상가시장들 또한 시대변화의 길에서 쇠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도시주거지 정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곁에서 떠난 것처럼, 앞으로 이곳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기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세계를 돌며 여행지의 잘 보존된 전통을 찾는 일도, 가까운 곳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모두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발로 걸으며 건축과 도시를 배우며 많은 건물과 마을을 보았다. 한 때의 존재와 부재를 증명하는 사진기록, 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p> 
<p>도시건축집단 성북동+공공작업실 도시건축집단 성북동(권운규, 이현식) 도시건축집단 성북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위해 2015년 결성한 젊은 건축가집단이다. 성북동에 자리 잡고,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화, 예술, 역사 및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도시와 지역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고, 건축 및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 실현과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다.</p> <p>공공작업실(김영배, 황수아) 공공작업실은 밀집된 도시-건축과 자연 환경의 인상으로부터 잠재된 희미해진 흔적을 재해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환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현하는 건축사무소이다. 미술, 디자인,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도시 안에 잠재되어 있는 흔적을 재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또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개인에 대한 의미 있는 작업을 중시한다. 작업은 주로 공공을 다루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 또는 상업, 업무시설이라 해도 그 건축에 담긴 내용과 건축이 지어질 장소를 신중히 고려한다.</p>	<p>새석관시장을 바라보는 건축적 시선 오래된 건축물을 실측한다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 그곳에 새겨진 걸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작업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모습과 크기를 하고 있는 현관과 창문들을 비롯하여, 닳고 닳은 계단난간들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무수한 삶의 흔적들은 우리가 상상만으로 따라가기엔 조금은 역부족이었다.</p> <p>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공동주택에 대한 기대심리의 산물이었을 초창기 상가아파트. 전통거주방식에서 난방연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과도기적 거주모습의 흔적들, 처음 기대와는 달리 경기불황과 상권의 약화 속에서 영육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재개발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지금의 모습을 지속하려는 사람들. 실측작업을 하는 동안 만난 서로 다른 공간과 상황, 입장들의 공존은 자연스럽게 '헤테로토피아'를 떠올리게 하였다.</p> <p>희미해져버린 흔적들을 되짚으며,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과,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 만들었을 삶의 지혜들을 유추하면서, 부족하지만 건축이라는 시선을 통해 새석관시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p> 

<p>마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와 동 대학 방송영상과 전문사 다큐멘터리 전공을 졸업했다. 자본이 도시의 장소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 <버블 패밀리>(2017)는 그의 첫 번째 장편영화이며, 2017년 EBS 국제다큐영화제 대상을 수상했다. '사회는 여성의 몸에 어떤 질병을 남기는가'를 화두로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다.</p>	<p>역사란 무엇인가 - 새석관시장의 역사 기록하기</p> <p>새석관시장의 역사를 재발견하고자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사료를 찾아보았다. 공식 문서 속에서 발견한 새석관시장에 대한 공식 기록은 단 일곱 줄에 그쳤다. 반면 상가아파트의 원형이라 불리는 세운상가는 온라인 검색만으로 쉽게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영상은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의 바탕이 되는 개념에 착안하여,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사실 간의 대화를 통해 기록되지 않은 사실의 역사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담았다.</p> 
<p>미싱룸 MISSING ROOM_ 김세진, 박고운, 염철호</p> <p>미싱룸(MISSING ROOM)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미술, 디자인, 건축 전공의 친구들이 모인 팀 이름이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는 커뮤니티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p> <p>미싱룸은 '장소에 숨겨진/사라진(MISSING) 이야기를 탐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장위동에서 진행한 커뮤니티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미싱룸(2017)을 기반으로 공공에 대해 질문하며 커뮤니티 디자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p>	<p>뉴-파인더 NEW-FINDER</p>  <p>뉴-파인더는 새석관시장 거주민 10인의 개인 이야기로부터 이 곳의 역사를 추적하고 사라지는 장소를 재발견하는 작업이다. 이야기를 모으고 이 사람들의 일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손과 자주 사용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물을 사진 리서치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웹으로 아카이빙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본을 제시하고자 한다.</p> <p>1층 기름집을 대표할 수 있는 50년 된 기름 짜는 도구, 옆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웃의 손, 오래된 시계방에서 시계를 수리하는 주름진 손 등 이 곳에 숨은 장면을 통해서 관찰자는 자연스럽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일상을 유추할 수 있다.</p>
<p>정희우 2011년에 강남대로를 그린 그림으로 <시간을 담은 지도>라는 제목의 전시를 했다. 2012년 <Peeling the City> 전시부터 탁본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다. 도시의 바닥에 있는 기호를, 아파트의 담을, 거리의 나무 간판을 탁본하여 전시했다. 2018년에는 <성수동 일요일> 전시를 통해 성수동의 오래된 간판을 탁본을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재현했다.</p>	<p>새석관시장 간판 기록</p> <p>어릴 적 흔하게 경험했던 시장은 작가에게 매우 익숙했던 장소였고, 그 형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도시의 다양한 장소들을 주로 기록해온 작가는 시간의 흔적을 가진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새석관시장 간판 작업을 통해 이곳을 담았다.</p> <p>물론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과 사람간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어떻게 기록해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펠트천으로 부활한 간판들을 통해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음식 냄새, 계산하는 모습, 사람들의 표정 등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p>

	
<p>천근성 낯선 곳에서 낯선 이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염원하고, 모든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작업을 통해 몸소 느끼고자 한다. 최근엔 '공동체', '생태', '돌봄'을 키워드로 작업과 생업을 병행 중이다.</p>	<p>기억을 짜주시면 기름을 짜드립니다 새석관시장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낡았고 낙후되어 있다. 20년 전통 족발집도 한 해가 지나면 21년이라고 간판을 고치는 마당에 새석관시장은 '새'를 달고 무려 47년이나 버텼다. 그러고 보니 외관 자체가 '새'석관시장 첫 시절 모습 그대로다. 상가는 거의 비워져 있지만, 숨씨 좋은 간판장이의 손 글씨, 유물이 되어버린 꽃무늬 간 유리창, 영화 세트장 같은 복도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준다. 사람들 기억 속에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비워진 상가 위에 공동의 기억을 올려놓자. "참여해주세요. 기억을 짜주시면 시장 방앗간에서 갓 짠 참기름을 드려요."</p> 
<p>김신아 현재 국민대 건축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다. 오래된 장소의 시간적 의미보다 그 장소에 녹아든 축적된 가치들을 찾아내어 건축과 일상의 간극에 대한 탐구를 위해 답사를 시작하였다. 초반에는 허름한 건축이나 일상건축 등을 답사하고, 3~4년 전부터 '오래된 주거'라는 테마로 지속적인 블로그와 자료집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p>	<p>서울의 상가아파트 답사 노트 잊혀져가고 있는 주거사의 일부를 기록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60-80년대 서울 1세대 아파트 답사 작업 중에서 상가아파트 30 장소를 뽑아 전시한다. 획일화된 현재아파트와 달리 이전의 아파트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 존재했고, 우리의 일상과 더욱 친밀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상가아파트는 당시 시대상황과 주변 환경이 맞물려 독특한 주거양식으로 남아있다. 엽서로 제작된 다양한 상가아파트를 통해 한국 근대화 시절 주거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p>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홍보담당 지강숙 (☎ 02-6906-9271) 또는
 사업담당 장유정(☎ 02-2038-998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